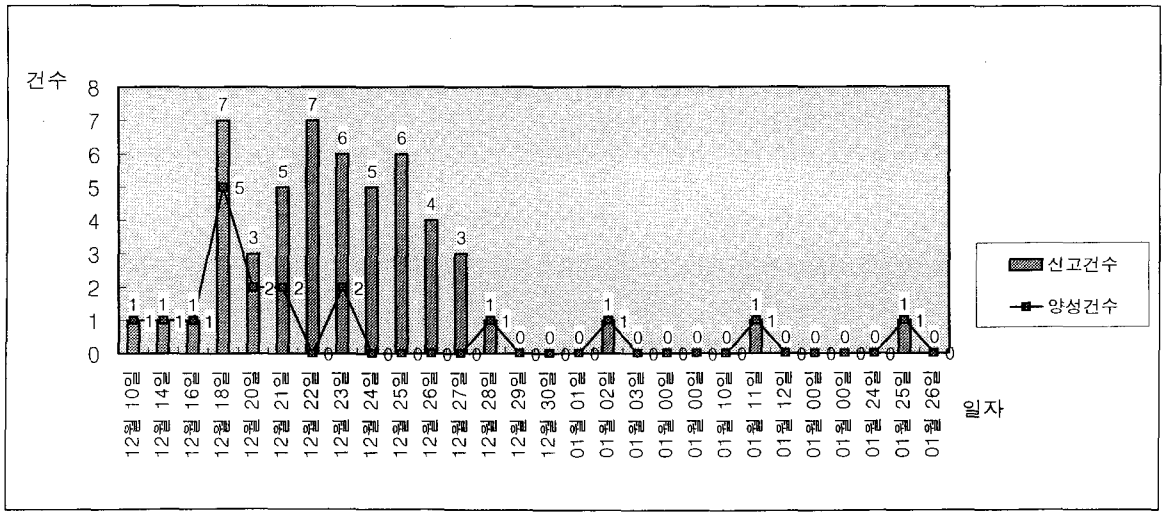
입식 자제, 소비촉진 등으로 위기 탈출의 지혜를 모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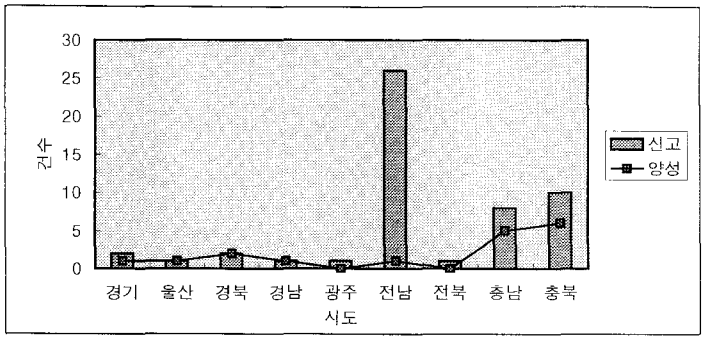
◇ 취재 / 김동진 차장/기자
(dj@poultry.or.kr)

1. AI 발생 현황 분석

지난 2003년 12월 15일 충북 음성의 한 종계장에서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가 국내에 처음으로 발생된 이후 제주도, 강원도, 전라북도를 제외한 6개도(충북, 충남, 경기, 전남, 경북, 경남)와 1개시(울산)에서 발생하면서 전국적인 확산양상을 보여주었다. 지난 1월 4일 충남 천안의 오리농장에서의 발생을 끝으로 추가 신고가 없어 AI로부터 해방되지 않을까하는 바램도 저버리고 경남 양산에서 지난 1월 13일 18,000수 산란계 농장에서 추가 발생이 확인되었고 1월26일 25,000수 산란계 농장에서 추가 발생되면서 다시 양계업계를 혼란에 빠뜨렸다(도표1). 더욱이 일본, 타이완, 베트남, 태국, 중국까지 동남아 지역에서 고병원성



〈도표1〉 AI 신고건수 대비 양성건수 현황



〈도표2〉 전국 지역별 AI발생 현황(신고건수 대비 양성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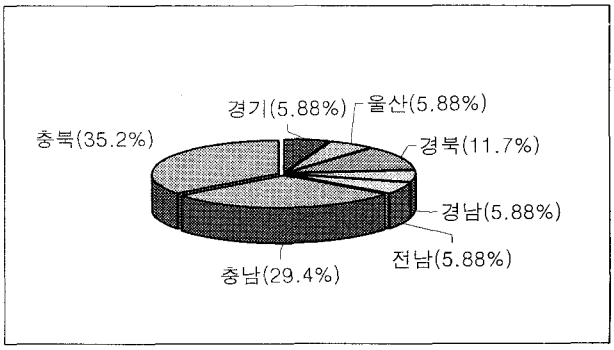
가금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속속 보도되면서 업계를 더욱 긴장시키고 있다.

질병 발생이 가장 많았던 날은 지난 12월 18일로 충북과 충남에서 5건의 농장이 신고되어 양성으로 판정을 받았으며, 처음 12월 15일 질병발생 보고 이후 27일까지 평균 5건의 신고가 접수되면서 업계를 긴장시켰다. 특히, 충남 천안에서는 삼계와 오리산업을 주도해 오던 F계열업체인 원종오리 농장에서 AI 양성반응을 보이면서 이곳에서 이미 분양된 농장들에 대한 채혈검사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졌고, 전국의 종오리 농장에 대해 3차 채혈까지 실시하면서 추가확산을 막는데 방역당국은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오리의 경우 F계열농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전남지역에서만 26건이 신고되면서 전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었으나 다행히 이 지역에서는 나주지역의 한 종오리 농장에서만 AI 양성이 확인되었고 나머지 농장들은 음성으로 판정되기도 하였다(도표2). 그러나 이 계열사가 부도를 맞으면서 오리 계열농가는 물론 육계, 삼계농가들까지 피해가 확산되면서 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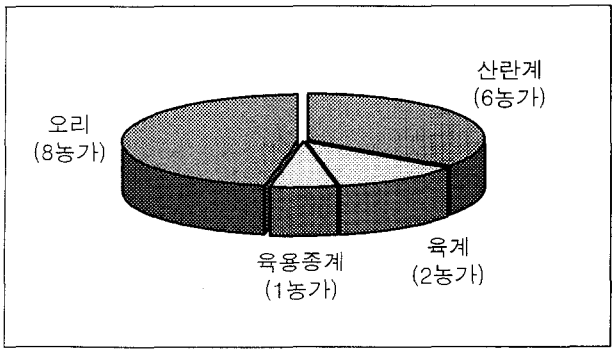
이번 AI로 인한 총 신고 농장건수는 54건으로 늘어났으며, 이중 양성판정을 받은 농가는 17개 농가로, 양계 9개농가(산란계 6, 육계 2, 종계 1)와 오리 8개농가로 나타났고, 나머지 37개 농장은 음성판정을 받았다(도표4).

정부는 발생농장 3km이내를 위험지역, 10km이내를 경계지역으로 정하고 전국에 이동초소를 설치, 방역요원을 투입하여 소독과 이동제한 조치를 내려 추가확산에 대비해오고 있다.

이번 질병 발생으로 26일 현재 123개 양계농가에서 137만수의 닭들이 살처분되었고 마



〈도표3〉 전국 지역별 AI발생 현황



〈도표4〉 축종별 AI 발생현황

지막 발생한 충남 천안에서도 3㎞내의 닭과 오리에 대해 살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AI의 잠복기는 최종 발생일로부터 21일이고 바이러스균이 최소 2개월은 지나야 안심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어 앞으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소비 급감

AI발생 이후, 양계산물 가격(특히 육계가격)이 하락하면서 농가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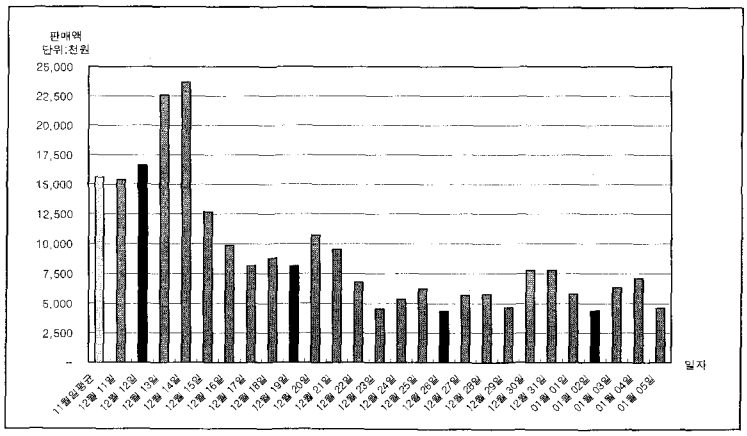
육계의 경우 질병 발생보고가 되기 전인 12일 kg당 산지가격이 1,000원을 기록하던 것이 17일 500원까지 급락하였고, 이후 상승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최근에는 400원 이하까지도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란의 경우 질병발생 이후 소비감소 현상이 나타나면서 체화현상을 보여주었으나 가격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동남아 지역의 질병발생 보도와 경남 양산의 가금인플루엔자 양성반응이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두차례에 걸쳐 12원의 큰 폭 하락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체화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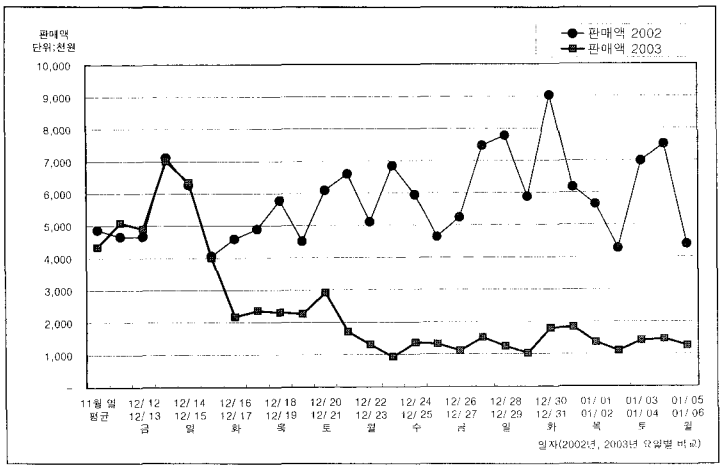
도표5는 서울시내 유명 H클럽 4개 지점에서 가금인플루엔자 발생이후 판매가격의 변화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보면 AI 발표 3일 이후부터 판매량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12월 25일 광우병까지 문제가 되면서 고기 소비에 대한 인식이 나빠져 더욱 소비량이 감소하였다. 도표6은 같은 H클럽의 C지점에서 지난해와 금년 같은 기간 닭고기 판매현황을 나타낸 것인데 AI발병 이후 전년 같은 기간 보다 큰폭으로 소비가 줄어들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H클럽 4개 지점의 닭고기 감소비율 추이를 보면, AI가 발생한 시점의 닭고기 판매비율은 지난해 11월 판매수준에 비해 15.6%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었으나, AI발생 1주차(12월 15~21)에는 11월에 비해 37.8%, 2주차(12월 22~28)는 64.5%, 3주차(12월 29~1월 4일)에는 59.8%가 감소한 것으로 각각 나타났으며, AI 발생당시(12월 12일 전후) 보다도 더욱 소비하락 폭이 컸다. 12월 말부터는 소비가 더 이상 감소하지 않고 서서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었으나 다시 외국의 질병발생 사실이 보도되면서 소비가 다시 얼어붙고 있다.

닭고기 가격 하락을 부추긴데는 각 방송과 언론이 한 몫(?)을 하였다.



〈도표5〉 AI발생 이후 서울시내 유명 H클럽(4개지점)의 닭고기 소비 추이



〈도표6〉 AI발생 이후 서울 H클럽 C지점의 전년 비교 닭고기 매출현황

질병 발생 보고가 되면서 각 언론사에서는 앞 다투어 '국내 조류독감 첫 발생!, 홍콩에서 발생했던 것과 같은 타입(H5N1)으로 인체에 해를 줄 수도 있다' 는 내용을 골자로 보도가 되었고, 모 방송국에서는 소독도 하지 않은 기자가 종계장에 들어와 처참하게 쓰러져가는 닭들을 촬영하여 내보내는가 하면, 폐사한 닭과 살아있는 닭들을 생매장하는 장면들을 연일 방송하면서 닭고기 소비가 50% 가까이 줄고 가격도 크게 떨어지는 현상을 보여주었다. 이로 인해 시내의 치킨집들의 판매량이 줄어 울상을 보였으며, 음식점, 식품매장에서도 소비자들의 발걸음이 줄어들었고, 출하될 닭들의 출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농가들의 걱정은 커져만 갔다.

또한 최근 아시아지역에 가금인플루엔자 발생과 인체감염 의심여부가 언론에 보도되고 홍콩의 미생물학 박사가 '조류독감이 사스보다 무섭다' 는 내용이 다시 언론에 회자되면서 회복세에 있던 닭고기 소비량이 큰 폭 하락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3. 수매 및 홍보활동

사태가 심각해지자 정부에서는 긴급 수매계획을 발표하였는가 하면 본회를 비롯한 농림부, 농협, 관련 업체들은 닭고기와 오리는 안심하고 먹어도 괜찮다는 내용을 소비자들에게 알리며, 대대적인 소비홍보 캠페인 펼쳤다. 대통령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직접 닭고기와 오리를 소비하면서 국민들에게 소비를 권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12월 27일까지 발생보고가 계속 이어졌고, 방송사와 각종 언론매체들은 이러한 사실을 실시간으로 비중있게 다루면서 마치 전쟁 게임을 즐기듯이 방송을 내보냈다. 본회에서도 지난 12월 29일 KBS, MBC, SBS TV 등 주요방송 3사를 방문, 방송 자재요청을 강력하게 건의한 바 있으며, 이후 추가신고가 줄면서 언론을 통한 방송 회수도 감소하였지만 다시 양산에서 질병발생이 보고되고 외국의 발생 등으로 다시 언론에서 방송회수를 늘려가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현재까지 닭고기 가격은 상승하지 않고 있으며, 매장에서의 판매량은 통닭 위주로 크게 하락해 상승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같은 원인으로 최근 축산업계를 위협하고 있는 소의 광우병, 블루셀라, 돼지의 돼지콜레라 등이 함께 문제가 되면서 국내 모든 육류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외면을 당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소비를 조기에 회복시키기 위해 AI발생 이후 정부는 농가수매 계획을 발표하고 계열농가와 일반농가(토종닭 포함)들로부터 수매 신청을 받아 수매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수매발표 초기부터 수매단가, 수매물량, 수매방법, 수매장소 등에 대한 혼선이 초래되면서 수매가 지연되었고, 결국 지난 12월 26일부터 계열 농가수매가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자체 물량위주로 처리가 이루어졌다. 일반 사육농가들의 수매가 지연되면서 그 동안 수매물량을 신청한 농가들이 수매를 기다리며, 정책의 혼선에 대한 항의가 계속되었고, 결국 수매발표가 난지 5일부터 본격적인 수매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한정된 배정물량으로 배정을 받지 못한 농가들이 2차로 다시 시 · 도를 통해 신청을 받아 처리가 되면서 혼란은 가속화되었다. 추가로 신청한 물량은 일반육계 490여만수와 토종닭 165만수로 600만수가 신청이 들어왔으며, 토종닭의 경우 설명절이 지난 후에도 계속적으로 수매가 이루어졌으며, 2월부터 추가로 육계 250만수의 수매가 다시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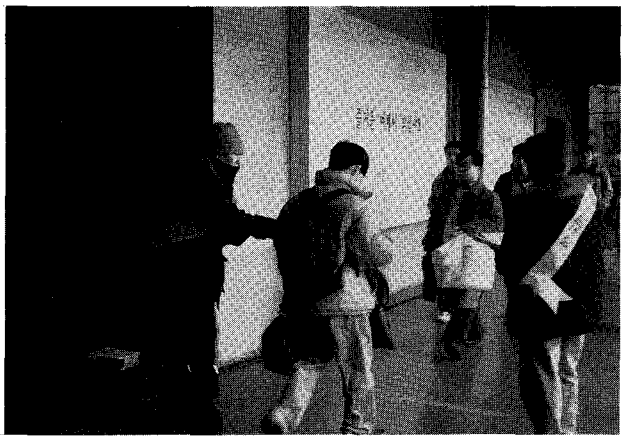
수매가격도 kg당 640원으로 책정되어 생산비 보다 턱없이 부족하였고, 더욱이 토종닭은 생산비가 육계보다 높기 때문에 수매가격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소비가 안되고 출하가 지연되는 관계로 '울며 겨자먹기' 의 심정으로 출하에 참여하면서 안타까움을 더해주었다.

농가수매는 가격 하락에 따른 출하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격을 회복시키자는데 목적이 있다. 수매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면 수매물량에 대한 충분한 파악과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자주 바뀌는 수매방침으로 농가들의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고 있다.

4. 소비위축 여전, 입식자제를

정부 수매작업은 지난달 대대적으로 이루어

▲ 닭고기 소비촉진을 위해 농림부 장관을 비롯 각계 인사들이 닭고기 시식행사를 가졌다.



▲ 설날을 기해 '닭고기 · 오리고기 안심하고 드세요' 라는 리후렛을 소비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다.

졌고 이달에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다시 추가발생이 확인되고 베트남과 태국의 가금인플루엔자에 의한 인명피해가 속속 보도되면서 설 전부터 다시 소비가 얼어붙었다. 문제는 이런 와중에서도 종란의 입식이 계속 되면서 농가로 분양되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가 과거보다 2배 이상 위축된 상태에서 정부의 닭 수매에 대한 기대 심리로 지속적인 입추가 진행되고 있다.

도표 7은 본회가 일반 부화장과 계열사 부화장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는 주간별 입란실적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 입란실적을 보면 AI 발생 보도가 되기전 5,829천개가 입란된 것이 발생보도 후 소비감소로 업계가 어려워지자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1월 4일부터 다시 물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계열업체들의 물량은 AI발생전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어 우려를 더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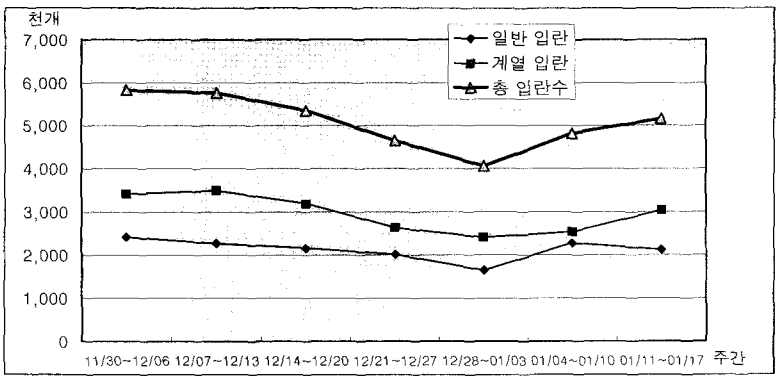
이런 추세로 이어질 경우 7주후인 2월 말부터는 다시 물량이 크게 늘어나 소비가 살아나지 않을 경우 최악의 사태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업계전반적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수수감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농가들도 입추를 자체하여 다같이 불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5. 맺음말

고병원성 AI 발생은 양계업계에 큰 재앙이다. 정부에서는 소비촉진 등 향후 계획을 내놓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각 매장에서의 판매촉진 사업이 살아나야 할 것으로 본다.

닭고기 전문 외식업체들은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마련하여 닭고기 소비를 유도하고 있으며, 각 지역은 물론 관련 업계들은 닭고기 소비촉진 행사를 통해 소비촉진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난 설명절에는 '설명절에 닭·오리 안심하고 드십시요"라는 리후렛을 제작하여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이번 사태에서 보듯이 언론의 보도가 산업에 큰 영향을 가져온 다는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정부나 업계에서는 언론사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산업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까지 심사숙고하여 내보내야 할 것이다. AI에 대한 혼란을 조기에 마무리짓는 것이 현재로서는 중요하며, 피해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 수매농가에 대한 빠른 조치와 수매비용 지급 등이 무리없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양계



〈도표7〉 AI발생 이후 종란 입란 추이